



나눔으로 여는 새아침

불교 국가인 라오스에서는 국민들이 이른 아침 탁발에 나선 승려들에게 보시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주민들은 매일 새벽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공양하고, 승려들은 이 음식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준다.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으로써 사랑을 키워가는 라오스 처럼, 2014년 새해는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 보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오스=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문화원형 품고 살아가는 소수민족 고대도시 전설들을 만난다

###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6부 라오스편 ▶12면

라오스=김경민기자

라오스 투앙프라방 주민들은 새벽 안개가 걷히기 전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가슴에 품고 집 앞 거리에 맨발로 줄지어 앉는다. 곧이어 주황색 가사를 입은 승려들이 맨발로 발우를 들고 나타난다. 이른 아침 시작되는 투앙프라방의 탁발(托鉢·탁빳) 행렬이다.

주민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찰밥과 바나나, 쌀 과자 같은 음식을 맨발로 줄지어 거리를 도는 승려들의 발우에 조금씩 넣는다.

승려들은 절대 발우를 가득 채우지 않는다. 공양받은 음식 중 일부는 가난한 아이들의 바구니에 나눠 담는다. 주민과 승려, 아이들은 이렇게 매일 아침 서로의 것을 조금씩 나누면서 삶의 자세를 배운다.

광주일보 '아시아문화 원류를 찾아서' 취재팀이 2014년 창마의 해를 맞아 천년 역사의 고대 라오스와 태국에서 여정을 이어간다. 지난 2012년 광주일보는 창사 60주년을 맞아 아시아

아 각국의 이야기를 발굴·소개하는 대하기획 시리즈 '아시아문화 원류를 찾아서'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즈베키스탄을 출발해 카자흐스탄,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의 신화와 전설, 민담, 소수민족 등을 소개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라오스와 태국에서는 원석 같은 이야기들을 발굴했다. 라오스에서는 자신들의 문화 원형을 품고 살아가는 크무족과 몽족 등 소수민족의 삶의 모습과 욕망이 사라지는 도시 투앙프라방의 전설 등을 만났다. 태국에서는 전설로 시작해 전설로 잠드는 아카족과 순박하기 그지없는 카렌족 등 소수민족, 그리고 고대 도시 위앙쿰캄을 다녀왔다.

깊은 산 속에서 문명을 거부하며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소수민족과 고대 도시의 역사 속에 담긴 전설들이 독자를 찾아간다.  
/kki@kwangju.co.kr



## 광주·전남 미래 바꿀 3대 役事 완공의 해

(1) 프롤로그 ▶르포 3면

# 靑馬처럼 달린다, 꿈의 미래 다가온다

2014년 갑오년(甲午年)은 60년 만에 돌아 온 청마(靑馬)의 해다. '말띠 해' 중 가장 진취적이고 활발하다는 '청마의 해'는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낙후의 대명사'인 광주·전남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3대 역사(役事)가 완성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호남소외의 상징으로 'MB'정권의 예산 구박을 힘겹게 버텨낸 호남고속철도(KTX 호남선) 서울~광주 구간이 오는 12월 완공되고, 10여년을 질질 끌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10월 말이면 16개 공공기관이 이주해 3만명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 공사도 드디어 마칠표를 찍게 된다.

올해는 또 2015년 열리는 광주세계

### 호남고속철

서울까지 1시간 33분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 아시아문화전당

굴뚝 없는 문화공장  
관광객 年 250만명 찾아

### 나주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 이전  
인구 1만6000명 유입

유니버시아드와 국제디자인 연맹 총회 등 '국제도시' 광주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될 대형 국제 대회를 준비하는 시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먼저 총 8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KTX 호남선이 개통되면 광주도 '전국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열게 된다. 광주~서울이 2시간39분에서 1시간33분으로 단축되고, 인천공항도 2시간14분이면 갈 수 있다.

광주는 특히 KTX가 정착하는 광주

송정역을 중심으로 서해안 물류의 중심축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볼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2015년 개관에 대비한 시운전에 들어가게 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광주·전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동력이다.

전문가들은 문화전당의 고용창출 효과만 11만2000명에 이르고, 생산유발 효과 8조7000억원, 관광객 유입효

과는 연 2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에 기아자동차 공장에 버금가는 메르스급 '굴뚝 없는 문화공장'이 들어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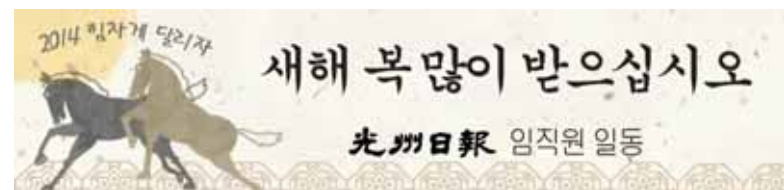
공정률 78%인 문화전당은 벌써부터 옛 전남도청 일대의 풍경을 바꿔 놓고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외벽을 마감한 문화창조원 등 5개 원은 전체한 광주 구 도심에 생기를 가득 불어 넣었고, 한 때 폭락했던 인근 땅값마저 견인하고 있다. 문화전당은 올

상반기 하드웨어 공정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 시운전을 거쳐 내년 7월 공식 개관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이 나주로 이주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하 빛가람 도시)도 올 하반기 공사 마무리와 함께 호남의 지형을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빛가람 도시는 최근 세종시 조성으로 충청지역 인구가 급속히 늘어났던 것처럼, 전남의 대규모 인구 유입을 이끄는 등 호남 발전의 중심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빛가람 도시 건설 후 생산유발효과만 1조1133억원이며, 이주 공공기관 직원이 가족과 함께 입주할 경우 1만6000명 이상의 인구 유입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신년특집 지면 안내

지방선거의 해.....4·5면	1년반 남은 광주U대회.....15면
올 광주시정·전남도정.....7면	말에 얽힌 이야기.....19면
亞문화원류를 찾아서.....12면	새해 극장가.....20면
화합의 강 섬진강.....13면	TV 하이라이트.....21면
완도해조류박람회.....14면	신춘문예 당선작.....24·25면

www.kjbank.com

## 謹賀新年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역과 함께 웃는 든든한 은행  
중소기업에게 희망이 되는 은행  
서민에게 웃음을 주는 은행  
광주은행의 약속입니다.

## 광주은행